친구들에게

안녕, 친구들.

나는 붓다란다. 사람들은 나를 '석가모니'라고 부르지.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란다. 사람들은 또 나를 '부처님'이라고 진심을 담아 부르기도 해. '부처'라는 이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알아낸 '깨달은 사람(붓다)'이란 뜻이 담겨 있단다.

너희 생일은 언제니? 내 생일은 음력 4월 8일이야. 올해는 내 생일과 어린이날이 겹쳤더구나. 그래서 올해 생일은 너희와 함께 축하하고 싶어.

너희들은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친해지고 싶지만 어쩐지 너무 엄숙하고 진지해서 다가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야. 인정해. 나는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 8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무척 낯설고 어려운 할아버지로 느껴지겠지.

그런데 혹시 알고 있니?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야. 나는 왕자로 지내던 시절에 아름다운 여인 야소다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두었어. 그 아이 이름은 '라훌라'야.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날 때 아버지인 나는 곁에 없었단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나는 그때,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어. 모두가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꿈꾸며 살 때 나는 구도자가 되고 싶었어. 구도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 나는 사람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어. 또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다, 괴롭다 하소연하는지 궁금했어.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었단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게임을 하면 행복하고, 놀이동산에 가면 행복하지. 그런데 이런 행복은 아주 잠깐만 우리를 기쁘게 해줄 뿐 오래 가지 않아. 자꾸만 지난번보다 더 큰 행복을 원하게 돼. 장난감을 하나 가지면 또 다른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이 갖고 싶어져. 그러다 보면 웬만한 것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다투게 되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자꾸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다툼을 불러오는 이런 행복 말고 다른 행복은 없을까? 나는 바로 그 행복을 찾아서 아내와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 이런 사람을 구도자 또는 수행자라고 부른단다. 내가 바로 그런 구도자가 된 것이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깨달은 사람' 붓다가 되어서 다시 옛집을 찾았을 때 라훌라는 7살이었어. 그때 어린 라훌라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 제게 좋은 걸 주세요."

친구들! 너희가 내 입장이라면 라훌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 같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는 큰 집이나 멋진 자동차, 훌륭한 직장도 없는 구도자인데 말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뿐인 내 아들 라훌라에게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것을 주고 싶었단다. 너희 부모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거야.

"그래,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우리 함께 가자."

나는 어린 라훌라에게 손을 내밀었어. 라훌라는 그 손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절에 들어갔단다. 어리둥절해 있는 라훌라에게 나는 가장 먼저 선생님을 소개했어. 그 선생님은 가장 지혜롭고 어진 '사리불'이라는 스님이었어. 사리불 스님은 언제나 라훌라 곁을 지켜주었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늘 라훌라와 함께였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아침 일찍 사리불 스님은 어린 라훌라와 마을로 탁발을 하러 갔지. 그때는 스님들이 아침마다 마을로 내려가 한 끼 식사를 얻어먹는 것이 전통이었거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들에게 다가와 흙을 마구 뿌려댔다고 하더구나. 이유는 없었어. 그냥 홧김에 그런 짓을 저지른 거지. 심지어 그 남자는 라훌라에게 주먹세례까지 퍼붓고는 바람처럼 도망치고 말았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느닷없이 당한 일에 라훌라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커지다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단다. 그런데 말이야. 사리불 스님은 씩씩거리고 있는 라훌라에게 조용히 말했어.

"저 아래 개울로 내려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오겠니?"

라훌라는 훌쩍이면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했단다. 처음에는 그 남자를 쫓아가서 자기가 당한 만큼 주먹질을 하고 흙을 뿌리고 싶었지. 그런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고 하더구나. 사리불 스님은 얼굴을 씻고 돌아온 라훌라에게 이렇게 말했지.

"얼마나 아팠니?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했니?"

라훌라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진정이 되었지. 사리불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

"아까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바란 것이 무엇일 것 같으냐? 어쩌면 자신의 거친 행동에 우리가 발끈해서 자신처럼 거칠게 굴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번에는 우리를 조롱하고 놀려댔겠지."

라훌라는 깜짝 놀랐어. 하마터면 그 나쁜 사람 술수에 말려들 뻔했기 때문이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지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친구들이 있거든. 폭력과 괴롭힘을 현명하게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못되게 구는 친구의 술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해. 말려들면 지는 것이니까. 그게 그런 친구들의 노림수이거든. 이럴 땐 일단 냉정해지는 것이 좋아.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야. 차분하게 대처해야 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 보면

그리고 주위 어른들에게 이런 일을 알려야 해.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알리는 것이 좋을까? 붓다인 나는 이런 마음을 품을 거야. 그 못된 친구가 혼 좀 나 봐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빨리 멈춰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른들에게 알리는 거지.

선생님인 사리불 스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날 이후 라훌라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하더구나.

'사람들은 왜 거칠게 행동할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면 자신도 마음이 편치 못할 텐데 자꾸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가 내게 거칠게 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

내 아들 라훌라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짐작해 보면서 자신의 행동과 마음도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 한번은 라훌라가 짓궂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골탕 먹였지. 자기는 재미로 장난을 쳤을 뿐이라 여겼지만, 당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

이번에는 내가 직접 라훌라를 찾아갔단다. 라훌라는 서둘러 그릇에 물을 떠 와서 아버지이자 붓다인 내 발을 씻겨주었지. 아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발을 맡긴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단다. 하지만 일러줘야 할 말이 있었기에 조용히 말을 건넸어. 나는 그릇의 물을 다 쏟아버린 뒤 그릇을 엎어놓고는 말했어.

"자, 라훌라야, 이 물그릇이 엎어진 것을 보고 있지?"

"예, 부처님."

"엎어진 물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겠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도 그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엎어진 물그릇과 같단다. 물그릇을 바로 세워야 맑고 깨끗한 물을 가득 담을 수 있겠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고 1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행동을 살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세운 물그릇이 맑은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노력의 달콤한 결과를 담을 수 있단다."

행복의 길이 보여요

그때 라훌라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 라훌라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 나는 라훌라가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 딱딱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야.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달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넉넉하게 그늘을 드리우는 그런 나무 같은 단단한 사람!

어릴 때 화려한 궁전을 떠나 절에서 지내던 라훌라는 어느새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자라났단다. 이제는 사람들이 라훌라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행복하게 지낼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어. 라훌라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지. 오래전, 어린 라훌라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노라 약속했던 그날을 떠올려본단다. 내 약속은 잘 지켜진 것 같아. 라훌라는 스스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어른이 되었으니 말이야.

너희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고 싶구나. 무엇보다 너희 자신이 행복하고, 행복해진 너희가 친구와 가족에게 그 행복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이렇게 오늘을 축하하고 싶단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작은 부처님들!"

이미령 경전 칼럼니스트



